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파업 특보

1호 (총15호)

발행인: 엄경철
발행일: 2010년 7월 1일(목)

총파업 돌입!

방송을 멈춰 역사를 열어라

KBS 역사상 첫 합법파업

오늘(1일) 0시를 기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임단협 쟁취, 조직개약 분쇄,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이다. 사측은 그동안 KBS본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또 KBS본부와의 단체협상에서도 오만불손하고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KBS본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측과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

하지만 결국 6월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S본부는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획득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KBS 역사상 첫 합법파업이다.

높은 파업 찬성률, 더 높은 파업 참여율

이미 우리 900조합원은 찬반투표에서 93%라는 초유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지지했다. 오늘 0시 보도본부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조합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버라이어티쇼와 드라마 등을 담당하는

파디들도 파업에 동참해 프로그램 제작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본부 사회부와 경제부 등에서도 대다수의 현장 취재 기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새로 KBS본부에 가입한 영상제작국 조합원도 파업에 들어갔다. 기존 파업에서 볼 수 없었던 순도 높은 투쟁이 예상된다.

무기한 파업, 사측 파업 파괴 공작 거부해야

사측은 이미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번 파업은 명백한 합법파업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이다. 이제 정권에 질식된 공영방송을 되살리고 KBS인의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당당하고 힘찬 파업 대오로 단체협약 쟁취하고 KBS를 살려내자!

파업일정

파업 1일차 - 7월 1일(목) <민주광장>

- 오전 10시 : 총파업 출정식
- 오후 2시 : 전국 조합원 총회

파업 2일차 - 7월 2일(금) <산란 앞 계단>

- 오전 10시 30분 : 조합원 결의대회 및 노래배우기
- 오후 2시 : 대국민 선전전

파업 3·4일차 - 7월 3일(토), 4일(일)

- 가족과 함께

파업 5일차 - 7월 5일(월)

- 오전 10시 30분 : 다시 민주광장으로

총파업 지침 1호

- 1 모든 조합원은 2010년 7월1일 새벽 0시부터 단 한명도 빠짐없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 2 본사 조합원은 7월1일 오전 10시까지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으로 집결해 출정식에 참석하고, 지역 조합원은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민주광장으로 모여 본사 조합원과 함께 전국 조합원 총회에 참여한다.
- 3 파업 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취재, 편집, 더빙, 녹화, 생방송 등) 비대위의 파업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4 취재·촬영물과 녹음, 녹화물 및 모든 업무는 파업 돌입 이전까지 소속 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한다.
- 5 파업 돌입과 함께 국내 출장자는 전원 회사로 복귀하고, 출장 예정자 역시 출장을 취소하고 파업에 동참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임. 단협 교섭 결렬의 책임은 사측에게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 사측은 지난 4월 8일부터 어제(6월30일)까지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우리 노측 안을 기준으로 139개 조항(전문, 부칙, 임금협상안 포함)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임단협 교섭 경과 요약

- 12월 29일 • 사측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청, 사측 교섭 불응
- 1월 21일 •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단협 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 3월 10일 • 남부지법 가처분 인용 결정(조합 승소)
- 4월 8일 • 단체협상 시작, 13차례 교섭
- 6월 1일 • 임단협 교섭 결렬, 중노위 조정신청
- 6월 25일 •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조정 결렬), 합법적 단체행동권 획득, 조정 기간 중 단협 교섭 8차례 개최
- 6월 28~30일 • 3차례 단협 교섭 & 최종 결렬

주요 미합의 조항

KBS본부	사측	비고(구노조)
임금 인상 10% 요구	하반기 별도 협상 주장	임금 협상 미개시
노조 전임자 6명 요구	전임자 불인정	전임자 12명 인정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공정방송위원회 불인정	공방위 설치, 운영
시간외 임금 현실화	시간외 실비 개념 유지	시간외 실비 개념 유지
직제개편, 대량 인사, 순환근무제 등 제 개정 시 본부와 협의 혹은 합의 후 실시	본부에 통보만 하고 일방적 실시 혹은 최대한 의견 수렴	조합과 협의 후 실시
자율 교섭 인정	자율 교섭 불인정	다수 노조로 자율교섭 인정 불필요

사측은 남부지법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며 오는 7월 15일 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하지만 항고를 하면서 사실 관계 변화가 없는데다 대법원 판례도 남부지법 결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의 싸움은 외롭지 않습니다

- 최상재** / 언론노조위원장
이 뜨거운 여름, 몸에 불을 당기듯,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은, KBS회생을 위한 간절한 소망 때문. 우리가 이깁니다.
- 이근행** / MBC본부장
오래 간절한 꿈,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그 꿈은 여러분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곁에 항상 동지들이 있습니다.
- 이윤민** / SBS본부장
KBS 파업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언론 노동자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Solidarity forever!
- 유투권** / YTN지부장
공정방송을,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KBS본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고뇌와 눈물, 그리고 승리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 양승관** / CBS지부장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본부의 힘찬 파업투쟁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의 방송 KBS의 부활이 머지 않았습니다. 투쟁!
- 정영홍** / EBS지부장
KBS본부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EBS지부는 물심양면의 모든 자원을 결행하겠습니다.
- 전동철** / OBS지부장
KBS파업!!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서는 첫 걸음입니다. KBS새노조!! 국민의 숫구치는 희망입니다. KBS새노조!! 힘내세요. OBS희망조합이 함께합니다.
- 고재규** / 시사IN지부장
부끄럽지 않은 KBS! 그대들은 공영방송의 희망입니다.
- 이영진** / 씨네21지부장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공정방송 쟁취 위한 KBS 새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 류이근** / 한겨레신문지부장
권력은 짧습니다. 김인규도 떠납니다. 정권도 김인규도 KBS를 소유할 순 없습니다. 진짜 주인은 파업에 나서는 여러분입니다. 힘내세요.
- 류형렬** / 경향신문지부장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있어 KBS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져볼까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KBS 노동조합 힘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파업투쟁 결의문

“KBS를 다시 살리겠다”

공영방송 KBS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KBS에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붕괴되고, 저널리즘 정신이 무너지는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다. 상식이 거부당하고, 영혼이 짓밟히는 일터를 다시 살리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파업은 새로운 KBS의 출발이다.”

우리의 파업은 다르다. KBS 새노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 싸움이다. 새로운 KBS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물러서지 않고,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파업은 새로운 KBS를 잉태하는 산고의 시간이자, 우리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는 대장정이 될 것이다.

“우리 파업의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KBS 안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느냐”. 이제 우리 파업으로 대답한다. KBS에도 비판정신은 살아있고, 끈질기게 싸워나가 KBS를 다시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단당하게 말할 것이다. 우리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

결전의 시간은 밝았다.

오늘부터 우리의 직업이자 자존심인 방송제작을 단호히 멈춘다. 오늘의 파업은 더 자유로운 방송, 더 공정한 방송, 시청자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공영방송 KBS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에 물러섬은 없다.

우리는 방송을 멈추고 KBS를 바꿀 것이다.

2010년 7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새노조 900명 돌파, 영상제작국 KBS본부 가입



6월30일 영상제작국에서 38명이 KBS본부에 새로 가입해 새노조 조합원이 900명을 돌파했다.

사측이 [파업기금 모금 게시물]을 삭제해 주신 덕분에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사측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 전민수** / 한국일보지부장
투쟁! KBS본부 파업 투쟁 필승하고 임단협 쟁취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일보지부 전조합원 KBS본부 승리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장윤선** / 오마이뉴스지부장
KBS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로 정권홍보방송에 중지부를 찍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KBS의 저력을 믿습니다! 가슴으로 응원합니다!
- 우장균** / 한국기자협회장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일시 후퇴했지만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1990년 KBS 파업이 국민의 방송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면 20년이 지난 오늘의 파업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또 다른 일보라 생각합니다.
- 원용진** / 언론정보학회장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KBS의 행보에 더 눈길이 갑니다. 의연히 맞서기 바랍니다.